

“고교생들, 꿈과 재능 찾아보세요”

전북교육청, 13일부터 대학연계 주말 강좌 운영 전주기전대 등 3곳, 예술·체육·진로·적성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예술·체육 및 진로·적성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 일반고·대학연계 주말 강좌가 6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전주기전대학·전주비전대학·원광보건대학 등 3개 대학에서 9개 강좌가

진행되며, 도내 일반계고 학생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업은 각 강좌별로 매주 토요일 4~5시간씩 10~12주차, 총 48시간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기전대학에서는 반려견관리(애완동물관리과), 제과제빵(호텔제과제빵과), 커피바리스타(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과) 강좌

가 운영된다. 전주비전대학에서는 3D모델링시제품 제작교육(신재생에너지과), 메이크업&네일(미용건강과), 영상·시각디자인(방송영상디자인과), 재난안전과 응급처치(응급구조과), 태권도(태권도과) 강좌가 진행된다. 이번엔 실시하는 강좌는 도교육청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실험실습 재료비 명목 일체의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부과할 수 없다. 또한 강좌 운영기간 동안 학생의 안

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대학연계 주말 강좌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예·체능, 가사·실습 등 기초적분야 교육을 제공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사교육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정훈량)가 2년 여에 걸친 본관 증·개축 공사를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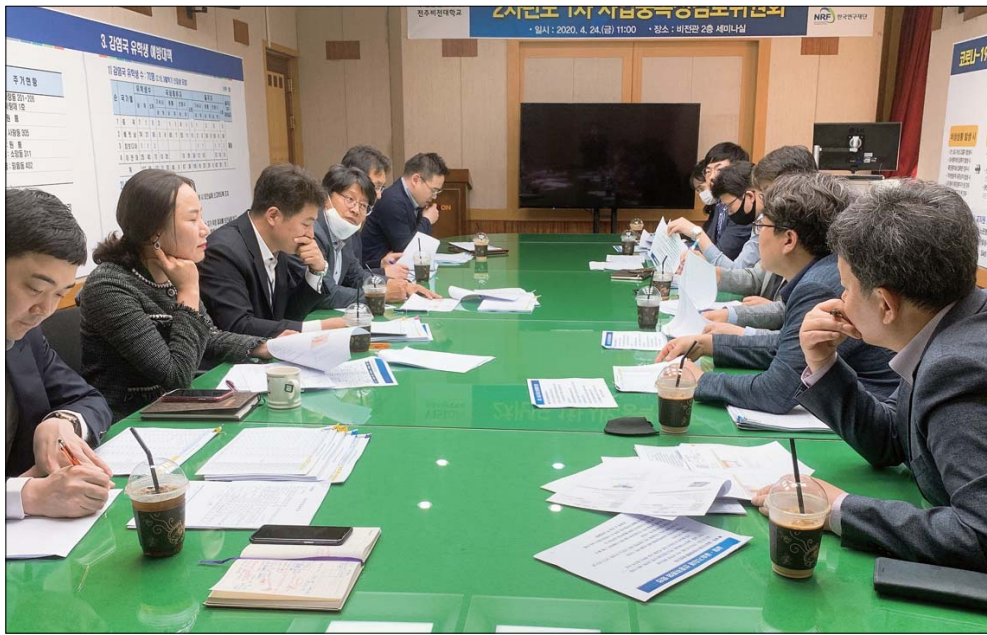
전북하이텍고, 본관 증개축공사 완료

전북하이텍고등학교(교장 정훈량)가 2년 여에 걸친 본관 증·개축 공사를 완료했다. 9일 전북하이텍고에 따르면 이번 증개축공사에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회의실, 수학교과교실, 중앙의실, 홈페이지 등 3층 15개 교실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이는 최근 교육과정의 학생 중심의 토론회 수업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수업과 참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동안 창조관과 지성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어 학생과 교직원 이동이 불편해 호소함에 따라 두 건물 통로가 가능하도록 연결복도를 만들었고 장애인 학생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중앙 현관에 최신형 엘리베이터

를 설치했다. 더불어 교실의 석면 철거, 오수정화조 설치, 수변전 교체, 아스콘 포장공사를 함께 실시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전국기능경대회에 대비해 4개 실습동 수선공사에도 53억원을 투입해 바닥보수와 창호 교체, 외벽보수, 내진보강 등도 마무리하고 있다. 정훈량 교장은 “공사가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100억 원을 투입하는 본관 증개축과 실습동 수선을 통해 전국 최고의 특성화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외부인사 초청 실습교육기자재 구축 포럼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온고잉(onging)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온라인 상호리빙 강의에 필수적인 실습교육기자재 구축을 위한 외부인사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백일현 부단장, 전병관 사업총괄 팀장, 김은성 기계과 학과장 김영진 실습지원플래너, 외부위원 등 총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사관리의 AI 적용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LMS 구축 등이다. 백일현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지구적 난제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학 주변 환경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 대학들은 이미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온라인 상호리빙 강의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온고잉(onging) 코로나 및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온라인 상호리빙 강의에 필수적인 실습교육기자재 구축을 위한 외부인사 초청 포럼을 개최했다.

“수능 12월 3일 예정대로”

유은혜 장관, 대입 불리한 고3 입시대책 7월 중 발표할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에 대해 “현재대로는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까지는 고3 대학입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9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향후 대입 일정이 바뀔 수도 있는지는 사회자 질문에 “일부에서 가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온다고 예고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범위로 유행을 모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측 가능하게 준비하는 게 우선이다. 후시라도 2학기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 놓아야 하지만 지금 그런 것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현 상황에서 대입일정을 연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또 재수하는 학생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60만에 가까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

게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나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다”며 “이미 연기해 12월3일로 발표를 했고 이에 맞춰 학생들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또 변경하면 오히려 더 현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고3이 대입에 불리하다는 반응에 대해 “현재 고3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만능부 작성이 수행평가 등이 어려운 만큼 대학들이 변화된 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제도를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하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학들이 내년도 입시 계획을 발표한 만큼 이를 변경하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하고 다시 승인 후 발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얘기다. 유 부총리는 “신속하게 대교협과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고3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인플루엔자 선제적 방재 기반 구축”

전북대 정민주 대학원생,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정민주 대학원생(생리활성소재과학과 박사과정·지도교수 정병훈)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0학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창의적, 도전적 아이디어를 주도적, 독립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정민주 대학원생은 향후 2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조류 인플루엔자의 선제적 방어를 위한 IFIM 가족 군 단백질들의 활성 기전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라는 주제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능력을 나타내는 IFIM 가족 군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과 조



류 분자유전학 연구실 동료분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재난형 질환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선제적 방재 기반을 구축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학문후속세대로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프리온 분자유전학 연구실은 지난해 김용찬 학생이 2019년도 글로벌발사 펠로우십(2년간 6,000만원 이내)과 올해 초에 원세영 학생이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2년간 4,000만원)에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발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